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8일 목요일 음 1월 7일 (14물)

기상정보

흐리고 눈

대체로 흐리고 눈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 낮 최고기온은 5~7℃로 전망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60%	제 주	60%
60%	성 산	30%
60%	고 산	30%
60%	서귀포	30%

	해뜸 07:15 / 해짐 18:21	달뜸 10:47 / 달짐 :
물때	만조 02:27 / 14:21	간조 08:46 / 21:15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3/13℃
모레	맑음	9/18℃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매우높음

월드뉴스

호주서 시신 바뀐 황당 장례식 치러

관 속 낯선 남자에 유족 경악 "같은 날 사망한 사람과 혼동"

호주 시드니의 장례식 장면.

호주 시드니에서 장의업체의 실수로 시신이 서로 바뀐 채 장례식이 치러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7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드니 남서부 뱅스타운의 그리스 정교 교회에서 열린 한 장례식에서 고인(故人)의 딸이 관 속에 아버지가 아닌 낯선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신이 바뀐 사실이 알려졌다.

이 장례식에 참석한 고인의 아내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 관 뚜껑을 열었는데, 딴 남자가 있어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이 고용한 장의업체의 실수 때문에 엉뚱한 시신을 두고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고인의 시신은 이미 다른 가족에 의해 록우드 공동묘지에 매장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장의업체는 급히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 유가족에게 돌려주고, 이들에게 모든 장례비용을 환불하는 조치를 취했다.

장의업체 대표는 "같은 날 사망한 두 남성의 시신을 동일한 관에 넣고 실수로 뚜껑을 바꿔 닫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이삭줍기가 두려운 흰뺨검둥오리

김 완 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오리류는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청머리오리, 원앙, 흑부리오리 등 28종에 이르며 대부분 겨울철새이다. 흰뺨검둥오리는 철새도래지, 중산간 습지, 마을 연못, 논습지 등에서 번식하는 텃새이다. 겨울엔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료들과 어울리며, 다른 종과도 함께 보낸다. 얼굴이 하얗고, 눈 앞뒤로 검은 선이 나 있고 눈썹선의 흰색이 뚜렷하다. 부리 끝의 노란색과 다리의 주홍색이 선명해 야외에서 쉽게 구분되지만, 다른 오리류와 달리 암수의 깃털색이 거의 똑같다.

오리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며, 수면 위에서 또는 잠수해서 먹이 활동하는 무리로 나누기도 한다. 흰뺨검둥오리는 잡식성이지만,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다.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경지에서 유채와 보리의 싹 그리고 브로콜리 잎사귀까지 뜯어먹는 바람에, 농민들의 미움을 사기도 한다. 당근 수확 철에는 사람들처럼 당근 이삭줍기에도 나선다. 부리 속으로 당근을 넣은 순간, 인기척에 놀라는 장면이 마치 훔쳐 먹다가 밭주인에게 들킨 사람처럼 놀란 표정이다.

사실 예전에는 제주사람들은 고구마, 감자, 보리, 무, 마늘, 양파 등 밭주인이 수확한 곳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풍습이 자연스러웠다. 밭주인도 다음 농사일을 위해서라도 밭에 남겨진 이삭을 주어주니 고맙게 여겼으니, 이삭줍기는 신뢰와 배려의 표상이었다. 또한 고구마밭이나 보리밭은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편의점이었다. 어떤 때는 제주에 여행오신 분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때를 맞춰 육지에서 내려오기도 했었다. 제주산 농작물이 몸에 좋고 비싸다보니, 제주 사람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이삭줍기는 허락받은 도둑질이기에 부지런할수록 이득이었다. 욕심이 과해서 먹을 거 이상으로 수확해서 이웃에게 선심 쓰거나 되팔기도 했다.

수확 끝난 경작지는 새들에게도 에너지 충전소이다. 논밭의 낟알은 오리나 기러기에게 중요한 양식이며, 당근밭도 오리들이 노리는 곳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먼저 이삭줍기에 나섰지만, 요즘은 오리들이 태연하게 이삭을 먹는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삭줍기보다는 편의점이나 카페를 먼저 찾는 시대이니, 어쩜 오리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하다. 하지만 선량했던 농부 인심은 카메라를 설치할 정도로 예민하게 변해버렸다.

이젠 이삭줍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비싼 특용작물로 바뀌면서 경작지를 지나는 것조차 의심받는다. 올레길을 걷다가 귤 한 개라도 땄다가는 바로 뉴스거리가 된다. 오죽하면 CCTV로 농산물 절도범을 잡아낼 정도로,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 오리들도 감시받는다. 도시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이 농부와 흰뺨검둥오리의 선의의 관계마저 끊어놓은 것이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에게 식량이 되었던 이삭줍기는 먼 옛날의 미풍양식이 되어버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름다운 배려와 제주다움이 예전같이 않으면서, 흰뺨검둥오리의 마음도 편치 않은가 보다. 늘 자기편이라고 여겼던 인간 세상에 꺄우뚱거린다. 진짜 절도범은 봐주고, 가뿐히 내려앉아 이삭줍기에 나선 흰뺨검둥오리가 법정에서 노란 경고를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텃새와 철새 그리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처지가 서로 비슷해야 불안하지 않는 법이다.

열린마당

새내기 공무원, 선배들이 응원하겠소

문 정 희
제주시 상하수도과

입춘이 지나고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도 작은 꽃송이를 피워 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봄은 모든 만물이 새로움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다.

새 봄이 되면 새 학기, 새 출발로 새내기 마음도 설레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새내기 공무원들이 들어왔다, 이들 새내기들의 공직생활은 첫 출근날 까만 정장 만큼이나 어색하지만 새로운 업무에 대한 도전과 열정은 여느 공무원보다 뜨겁다.

간혹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나 역시 30여년 공직 생활을 함께한 시간들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뒤에서 걱정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동료 공무원들이 있어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한다.

신규 직원들이 가장 힘든 것은 조직에 대한 적응 및 업무 처리에 대한 능력 미숙, 민원 응대 등일 것이다.

선배 공무원인 경우 자식 또래의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 세대간의 갈등이 있다. 이런 세대간의 소통은 서로 존중과 배려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고 서로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적응을 위한 멘토링을 통해 신규 직원은 공직 문화와 업무 지원 등을 익히고 선배 공무원은 참신한 감각을 공유해 서로의 직무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이나 회식 등의 기회가 사라져 직원간 대면 접촉의 기회가 감소됐다. 직원 간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의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한다. 사례로 도시락 점심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고충을 들어준다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새봄, 새내기 공무원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

도박중독과 공공의 역할

강 성 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왜 도박을 할까. 도박 자체가 주는 재미와 승부에서 이길 경우 생기는 쾌감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심심풀이,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몰입하게 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게 된다.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술이나 약물과 같은 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와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중독에 대한 개념은 약물중독을 넘어 도박, 쇼핑중독, 게임중독 등 행위 중독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다.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만 20세 이상 인구 중 5.3%인 약 222만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선진국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의 경우 지난해 n번방 사례처럼 온라인을 통한 사행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잠재적인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박중독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정한 정신질환으로 개인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폐해로 이어져 가정폭력, 이혼, 범죄, 자살, 경제적 파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도박중독은 만성질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발률이 높고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확대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함께 도민의 행복, 복지, 안전을 위해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 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서귀포시정소식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알림
□ 공 연 명 : 2021 명품 클래식 시리즈Ⅱ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공연일시 : 2021. 3. 9(화) 19:30
□ 공연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예 매 일 : 서귀포시 E-티켓 3월 2일(화) 10:00~ 선착순 마감
□ 입장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입 장 료 :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제주도민, 1인 4매 한정)
※ 대면 공연은 제주도민에 한해 관람 가능합니다.
※ 본 공연은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로 진행되며, 공연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실황 중계 : 서귀포시 유튜브, 서귀포시 페이스북
□ 공연문의 : 서귀포예술의전당 (☎ 064-760-3365)

3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화상교육(ZOOM) & 대면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1. 2. 15(월) ~ 2. 25(목)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서귀포시민
(단, 온라인 줌 앱 사용 가능자)
□ 프로그램
- 화상교육 : 색소폰 초·중급반, 플루트 교실, 요가교실, 기타 초·중급반, 생활영어·일본어·중국어 초급반
- 대면교육 : 카페브런치 베이킹, 문인화, 생활도자기, 가죽공예 2급 민간자격과정, 인터넷 배우기, 서예교실, 홈패션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은 변동(폐강)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https://edu.seogwipo.go.kr/life/index.htm)
□ 수 강 료 : 계좌이체 (수강신청과 동시 입금 원칙)
※계좌번호 : 농협 301-0126-5878-11(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접수문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760-3871~3874, 2262, 2263)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관람제한 변경 시행 알림
□ 대 상 : 천지연, 천제연, 정방, 주상절리, 산방산(용머리해안)
□ 제한기간 : 2021. 2. 15 ~ 2. 28
□ 제한사유 :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운영
□ 제한인원 : 수용 인원의 50% + 일부 관광지 시간당 제한
※ 5인 이상 단체 입장 제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 760-6302)